부산 남구에 소재한 형제돼지국밥(대표 최석윤)은 지난 14일 지역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식생활을 응원하기 위해 밀키트 200개를 감만종합사회복지관(관장 진동명)에 후원했다.이번 후원은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위로를 전하고자 마련되었으며, 후원받은 밀키트는 감만1, 2동에 거주하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최 대표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어르신들께 따뜻한 국밥으로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감사하다.” 라며 “앞으로도 이웃을 위한 기부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형제돼지국밥은 부산에서 15년째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부터는 ㈜웨이브앤바이브로 MOQ(최소 구매수량) 부담을 줄인 밀키트·간편조리식 생산 플랫폼 ‘히어로밀’로 도약하고 있을 운영 중인 청년기업이다.